

2 뉴스

교환학생 막학기 불가 급해지는 코로나 학번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입학 이후 비대면 학기의 영향을 받았던 학생을 지칭하는 일명 ‘코로나 학번(20~22학번)’ 학생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입국 제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교환학생을 경험할 수 없었던 학생이 급히 준비하는 경우 또한 많아졌다.

하지만 ‘눈 깜짝할 새’ 고학년에 접어든 코로나 학번 학생의 교환학생 지원은 쉽지 않은 상태다. 우리 학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종료 후 최종학기를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4학년 2학기에는 해외 대학으로의 파견이 불가한 것이다.

이러한 제한의 주요 까닭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종료 후 최종학기를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규 학기를 8학기라 할 때, 4학년 2학기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시 학생의 졸업 사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국제교류처는 “해외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할 시 본교와 학사일정이 다르기에 성적표가 굉장히 늦게 나오기도 하고 졸업 사정이 안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학교는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4학년 2학기에도 교환학생 파견

을 허용했다. 코로나19로 교환학생을 가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4학년 2학기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은 ‘초과 학기 등록 및 졸업 사정 관련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사항은 지난해 1학기부터 시작해 이번 학기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2024학년도 1학기 신청자부터는 다시 기존 규정을 따른다. 국제교류처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다시 기존의 원칙을 따르기로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수 있는 학년에 대한 기준은 대학마다 상이하다. 4학년 2학기에도 교환학생이 가능한 대학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이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고려대 국제처는 “학칙상 졸업 전 마지막 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해야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휴학을 하거나 초과 학기를 이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세대 국제교류원 역시 유사한 대답을 내놴. “연세대도 기존에 8학기에 파견 갈 수 없었다”며 “학생의 학업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게 하고, 학생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올해부터 해당 규정을 바꾸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 학교 역시 4학년 2학기에 교환학생 파견을 허용하는 대신 초과 학기 등록을 장려하고 있지만 학업 경로에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학교와 차이를 가진다. 4학년 2학기에는 파견을 금지하는 학교 측의 이유에 공감하면서도, 대안 제시 대신 가능성 배제를 선택한 학교의 결정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4학년 2학기 파견을 허용했던 1여 년의 기간이 ‘코로나 학번’ 학생

들이 교환학생을 숙고하고 준비하기에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교환학생을 뒤늦게 준비 중이라 밝힌 A(미디어학 2020) 씨는 “교환학생은 대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큰 혜택이기에 코로나로 잃은 2년에 더해 교환학생 지원 기회까지 축소된 것에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학기 이수를 통해 파견이 가능하다면 기꺼이 추가 등록금을 지불하고 교환학생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교환학생의 파견 가능 학기를 조정할 가능성에 국제교류처 측은 당분간 계획에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제교류처는 “졸업과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 국제교류팀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며 “추후 조정하게 된다면 졸업 사정을 담당하고 있는 학사지원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유예 의사를 내비쳤다.

국제캠 학생 시설 불편한 대여 절차

배연우 기자 yeonwoo.bae22@khu.ac.kr

【국제】국제캠퍼스(국제캠) 시설 대여가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캠에서 학생 대여가 가능한 시설은 ▲중앙도서관 3층 회의장(르네상스홀, 피스홀, 광세홀, 대회의실) ▲공연장(A&D HALL, A&D GALLERY) ▲체육시설 등이다. 중앙도서관 3층 회의장은 총무관리처 관리팀, 공연장은 예술디자인대학 행정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운영단이 관리한다.

공연장은 예술디자인대학(예대)에 대여 요청을 한 뒤, 행정실 측에서 사전 소통을 진행하고 사용 인원과 목적을 기준으로 대여 여부를 정한다. 체육시설은 국제캠 체육시설 운영단을 통해 대여 신청이 이뤄지며 매 학기 초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아리로부터 신청서를 받는다. 국제캠 체육시설운영단은 대여 일정이 겹칠 시 각 동아리나 체육대학에 연락해 일정을 조율한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시설 대여 절차가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소별로 담당 부서와 대여 방법이 다르고, 연락하지 않는 이상 대여 가능 시간대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미식축구동아리 국제캠 부장 손형준(국제학 2022) 씨는 “3호관 운동장을 빌리려 한 적이

있는데 사용 가능한 시간대를 명시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현행 대여 방식의 번거로움은 시스템 관리 주체에 있다. 국제캠에는 시설 대여를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없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시설 대여는 시설운영팀이 맡고 있으며 스마트학사를 통해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 장소는 ▲크라उन관 ▲노천극장(테니스장, 농구장) ▲대운동장 ▲청운관 B117호 ▲네오르네상스관(네오누리 112호, 동아리 연습실 B215~B217호) ▲악학관 대강당(B301호) 등이다. 예약은 대여일 기준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가능하다. 국제캠 정보처 문준수 차장은 서울캠과의 시스템 차이에 “과거부터 꽤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다”며 “통합 예약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장소 관리를 맡고 있지 않은 부서가 예약을 맡는 것 자체가 꺼려져서 현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예대 행정실은 “온라인으로 대여 신청을 받으면 일정이 꼬일 수도 있고 공연장과 전시장에 쓰이는 고압전기와 무대조명은 학생이 관리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제2열람실 모습이다. 제4열람실 책상도 리모델링을 통해 콘센트가 배치되면서, 규정과 달리 키보드 타이핑과 마우스 클릭이 가능하다고 인식한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지수 기자)

열람실 개선, 규정 자리잡아야

장해린 기자 sunblessyou@khu.ac.kr

【서울】리모델링 이후 서울캠퍼스(서울캠) 중앙도서관(중도) 열람실에서의 키보드 타이핑 및 마우스 클릭 가능 이용수칙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캠 중도는 리모델링으로 모든 열람실에 콘센트가 있는 책상을 설치했다. 가장 체감되는 변화는 제2열람실에서 기존에 금지됐던 키보드 타이핑과 마우스 클릭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제2열람실에서 키보드 타이핑과 마우스 클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

한 학생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키보드 타이핑과 마우스 클릭 가능 규정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또한 제4열람실 책상도 리모델링을 통해 콘센트가 배치되면서, 규정과 달리 키보드 타이핑과 마우스 클릭이 가능하다고 인식한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이 이어지고 있다.

교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리모델링 후 제2열람실에서 키보드 타이핑이 가능하냐”는 불만 섞인 질문과 “전자기기 소음 때문에 자습에 방해가 간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류은우(응용영어통번역학 2020) 씨는 “조용한 자습을 위한 공간이 사라졌다”며 “책상에 콘

센트가 생긴 건 좋지만 학생들은 이를 전 좌석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으로 인식해 제4열람실 및 집중열람실의 키보드 타이핑 및 마우스 클릭 불가 조항 의미가 희미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예진(정보디스플레이학 2022) 씨는 “전 좌석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하다 해서 키보드 타이핑과 마우스 클릭이 모든 곳에서 가능한 줄 알았다”며 “이런 규칙을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캠 중도 학술연구지원팀 김지영 과장은 “향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실 이용 에티켓’ 페이지도 조만간 추가하고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